

나이팅게일 선서식 훈사

오늘 우송정보대학 제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갖고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뜻 깊은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선서학생 88명,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님,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이강이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행되는 이 선서식은 간호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이전에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과 사명을 다짐하고 본받아서 일생을 간호 전문직에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선서 학생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간호 받는 환자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여러 교수님과 부모님들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선서 학생 여러분!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한 출발점에 선 여러분에게 앞으로 명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직인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 정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간호 행위 하나 하나에 따라 환자의 결과와 예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간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고통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간호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쾌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깊이 새겨야합니다.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삶의 소중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나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나이팅게일이 스스로를 불태워 어둠을 밝혀준 촛불이 된 것처럼, 아프고 병든 이웃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간호에 헌신했던 것처럼 간호사의 길은 자기희생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는 점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길이 힘든 일이지만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어루만져주며 간호했을 때 그들이 안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간호에 임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간호의 길은 희생과 헌신의 소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 그 속에서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임상실습에 임할 때는 물론 앞으로 간호사로서 일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일한다면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우송정보대학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전문 간호사의 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참된 의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 또한 학생들의 뒷바라지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선서 학생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28)